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7월 교육 내용	04
☼ 7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7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7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7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7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7월 위드포토	66
☼ 7월 추천도서	68
☼ 7월 위드스티커	69
☼ 7월 교육활동지	71





암송 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첫째주♥
“예수님을 만난
바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20)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둘째주♥
“예수님을 전한
바울”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셋째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넷째주♥
“비교하지 않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해요.

♥다섯째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바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실천 내용

1.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2.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살아요.

7월 첫째주
2022년 7월 3일~9일



Memory Time



예수님을 만난 바울

첫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5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행전 9:1~22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말씀 나눔

①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3절)

○ ○ ○

②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도와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 ○ ○ ○

★ 교육활동 - “사랑의 하트 접기”

준비물 : 색종이, 필기도구

① 색종이로 하트를 접어보아요.

② 접은 ‘사랑의 하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친구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5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행전 9:1~22

사울은 구약의 율법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누구인지 묻자,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4-5절, 새번역)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 살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제일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름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사랑을 전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있었나요?



Pray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7:1-8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 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권세 :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권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를
주셨습니다.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2. 본문에서는 “○○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3절)

- ① 구원 ② 영광 ③ 영생 ④ 말씀

with
생각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
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
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며,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
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with
결심

본문에서 영생, 즉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
하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예: 내가 인기 개그맨 유재석씨를
‘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늘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통한 깊이 있는 앎이 이루어질 때 영생, 즉 구원
을 얻을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2.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7:9-13 “예수님의 기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0.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멸망 : 망하여 없어지는 것

아뢰다 : 말씀드려 알리다

with
관찰

1.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빌고(기도하시고) 계시나요? (9절)

아버지의 들

2.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셨나요?
(13절)

with
생각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인데,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미리 아시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요 13:1).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7:14-19 “진리로 거룩하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 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 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 다.
19.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진리: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거룩: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7절)

“ 로 그들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입니다.”

with
생각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참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은 남을 미워하고, 나만 위하는 죄악된 삶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길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필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7:20-26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3절)

“내가 그들 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with
생각

17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with
결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해요. 우리 부서 안에는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관심을 보이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누구를 불편해하거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부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사도행전 16:25 -



7월 둘째주
2022년 7월 10일~7월 16일



Memory Time



예수님을 전한 바울

둘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오늘의 주제** : 예수님을 전한 바울 ▷사도행전 14:8~18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말씀 나눔

①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8절)

○ ○ ○ ○

②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 ○ ○ 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교육활동 -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준비물 : 위드지, 필기도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우상'임을 배웠어요. 나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보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마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둘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사도행전 14:15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전한 바울 ▷사도행전 14:8~18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발로 똑바로 서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외쳤어요.

친구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찾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에는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Q 1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고백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8:1-14 “체포되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2.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 곳을 알고 있었다.
3.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4.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7.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9.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0.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11. 그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로마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나요? (3절)



2.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10절)

- ① 유다 ② 요한 ③ 마태 ④ 베드로

with
생각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시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칼을 빼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를 향한 구원을 이뤄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8:15-27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까지 들어갔다.
16.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그 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18.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쪼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생략)
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26.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문지기 : 문을 지키는 사람

부인 :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with
관찰

1.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시몬 베드로 ② 요한 ③ 안나스 ④ 가야바

2.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나요? (17, 25, 27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with
생각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 되시고 난 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with
결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나요?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나의 입으로, 또 나의 삶으로 고백 되어야 해요.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바른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바른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8:28-40 “어리석은 유대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3.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37.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38.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39.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40.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관저 : 총독과 같은 고위 관리들이 사는 집

동족 : 같은 민족의 사람

관례 :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with
관찰

1.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하고 질문한 총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3절)

- ① 안나스 ② 빌라도 ③ 가이바 ④ 바라바

2. 빌라도가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주라고 외쳤나요? (40절)

강도

with
생각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다고 고발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온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어요.

with
결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자신들을 더 높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뿐이었고, 그로 인해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9:1-7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2.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3.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4. 그 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 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5.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6.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7.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색 : 짙은 남색을 띤 붉은 색, 검붉은색

with
관찰

1.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뭐라고 외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나요? 빈칸을 채우세요.(3절)

“유대인의 만세!”

2.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7절)

“하나님의 ”

with
생각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어요. 병정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만든 뾰족한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조롱하고 때렸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다시 말하니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어요.

with
결심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돌아보세요.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사도행전 16:25 -



7월 셋째주
2022년 7월 17일~23일



Memory Time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바울

셋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바울 ▷사도행전 19:11-20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 말씀 나눔

- 1 누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나요? (11절)
- 2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불태운 책값은 계산하면 얼마나 되었나요? (19절)

★ 교육활동 - “나만의 능력액자 만들기”

준비물 : 워드 활동지

- 1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액자 속에 자신의 능력을 적거나, 그려주세요.
- 2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지’ 액자를 전시하고, 설명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일도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따라했어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을 따라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힘으로 놀러버렸고,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바울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에요. 마술사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마디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해요. 그렇게 바울처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Q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 있나요?

Pray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9:8-16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걱정**이오? 나에게서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 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12.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14. 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 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15.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 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 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16.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걱정: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

권한: 어떤 일을 할 권력, 권력이 미치는 범위

폐하: 황제의 높임 말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

반역: 황제를 배신함

처형: 형벌을 받게함

with
관찰

1. 빌라도는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어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무엇인가요? (13절)

2.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나요? (16절)

with
생각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쓰자 유대 사람들은 더 맹렬하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은 황제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with
결심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는 말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고 말았어요. 유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고, 진실인지를 알면서도 나의 편안함, 안전을 위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비취 나를 살펴보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르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9:17-2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 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18.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19.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라고 썼다.
20.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21.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22.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23.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24.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겹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명패 : 이름이나 직위를 써서 놓아두는 패

도성 : 나라의 수도, 임금이나 황제가 있던 도읍지

제비 : 돌이나 나무, 종이 등을 이용해 땅 위에 던지거나 통에 넣고 뽑아 चु침하는 것



with
관찰

1.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곳은 ‘어디’이며, 그 곳은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쓴 보기를 고르세요. (17절)
- ① 해골 - 골고다 ② 해골 - 가바다
 ③ 예루살렘 - 골고다 ④ 해골 - 예루살렘

2.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패에 무엇이라고 썼나요? (19절)

‘유대인의 나사렛 사람 ’

with
생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가셨어요. 병정들이 그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쓴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을 체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사형제도였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취급과 이러한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9:25-30 “숨을 거두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5.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27.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28.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숨을 거두다 : 사람이 죽다

with
관찰

1.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여자들은 누구, 누구였나요? 보기를 보고 알맞은 사람을 적은 번호를 고르세요. (25절)

<보기>

㉠ 예수님의 어머니 ㉡ 이모 ㉢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 막달라 마리아

① ㉠

② ㉠, ㉡

③ ㉠, ㉡, ㉢

④ ㉠, ㉡, ㉢, ㉣

2.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30절)

with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슬초 대에 췌신 포도주를 입에 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께 주었을까요? 구약에서 우슬초는 부정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에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에 바르기도 하였지요. 우슬초에 매어있는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죽음)가 우리의 부정할 죄를 없애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마다 이 의미를 기억하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십자가를 통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9:31-42 “요셉과 니고데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1.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32.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33.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34.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36.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7.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38.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39.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40.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았다.
41.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42. 그 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시신 : 시체

with
관찰

1.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나요? (36절)

- ① 빌라도의 명령 ② 성경 말씀
- ③ 사람들의 소원 ④ 예수님의 부탁

2.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누구와 누가 왔나요? (38, 39절)

아리마대 사람 ,

with
생각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 준비일이 다가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고, 니고데모가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져와 유대 사람들의 장례 법대로 향료와 함께 세마포에 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 안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남은 제자들은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담대하게 나섰어요. 사실 두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요청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고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의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제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사도행전 16:25 -



7월 넷째주
2022년 7월 24일~7월 30일



Memory Time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넷째주

♥ 주제 : 비교하지 않아요

♥ 암송구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 오늘의 주제 :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에베소서4:12, 사도행전13:1-1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해요.

여름성경학교 닫는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비교하지 않아요

♥ 암송구절 :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에베소서4:12, 사도행전13:1-12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다른 도시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지 않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했지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통해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 잘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Q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던 적이 있나요?

Pray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20:1-10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간의 첫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4. 돌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5.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7. 예수의 머리를 싸맷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8.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10.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어귀: 입구

개키다: 천 등을 개다,
천이 개어져 있다

with
관찰

1.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절)

- ① 막달라 마리아 ② 시몬 베드로
- ③ 요한 ④ 야고보

2. 무덤으로 뛰어간 제자 중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제자는 누구인가요?
(3절)

□ □ □

with
생각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길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제자들은 곧바로 달려와 무덤 안을 확인해보았어요. 무덤 안
에는 죽어서 누워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찢
던 천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
던 것이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20:11-18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4.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18.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발치: 누울 때 발이 있는 쪽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with
관찰

1.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나요? (15절)

2.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히브리 말) (16절)

with
생각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뒤에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하고 부르시니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with
결심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야”하고 이름을 불러 주셨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고,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름도 부르고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부름에 ‘예수님!’하고 대답해 보세요. 나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20:19-23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9.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19절)

- ① 회개 ② 믿음 ③ 평화 ④ 예배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나요? (23절)

with
결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이예요.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성령님과 함께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20:24-31 “믿지 못한 도마.”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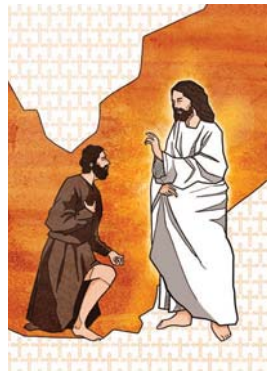
-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여드레 : 8일



with
관찰

1.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제자는 누구였나요? (24, 25절)

2.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29절)

with
생각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엿지요. 8일 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져 보라 하시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공기나 바람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휘날리는 나뭇가지, 숨을 들이마시는 코와 같이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공기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곁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성경,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것을 통해 예수님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 사도행전 16:25 -



7월 다섯째주
2022년 7월 31일 ~ 8월 6일



Memory Time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바울

다섯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 오늘의 주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바울 ▷사도행전 16:16~34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❶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인가요?(19절)

○ ○ , ○ ○

❷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 밤중에 무엇을 했나요?(25절)

○ ○ 하고 하나님을 ○ ○ 했어요.

★ 교육활동 - “하나님을 찬양해요(마라카스 만들기)”

준비물 : 빈 물통, 콩 or 쌀, 물통을 꾸밀 재료(마스킹테이프, 리본 끈, 색종이 등), 풀, 가위

❶ 빈 물통 안에 콩이나 쌀을 넣고 뚜껑을 잠근다.

❷ 물통 겉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리본끈, 색종이 혹은 스티커 등으로 꾸민다.

*이 때 뚜껑에 아이들 사진을 붙여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새길 수도 있다.

❸ 함께 흔들면서 찬양을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포인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종과 마주쳤는데,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어요. 바울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자에게서 나오나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날 밤,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찬송 소리는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그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신 것이었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예요.



토론하기

Q 1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Pray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21:1-8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서 겹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8.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 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동이 트다: 해가 뜨다, 동쪽 하늘이 흰히 밝아오다



with
관찰

1.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의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나요? (6절)

with
생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였어요.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쯤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어요.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분이 다시 말하였어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하신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신줄 깨달았어요.

with
결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은 바로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지요. 어부가 밤새 열심히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나의 이해와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21:9-14 “제자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14.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그물 안에 있던 물고기는 몇 마리였나요? (11절)

마리

2.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부활하신 후 몇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나요? (14절)

번째

with
생각

베드로가 그물을 땅으로 내려 물고기를 세어 보니 153마리나 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땅으로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빵으로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온 베드로를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지쳐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몸을 녹일 따뜻한 숯불을 친히 준비하셔서 식탁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나에게도 다시 찾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저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2.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21:15-19 “요한의 아들 시몬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16.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17.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암시: 년지시 알리는 것,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간접
적으로 표현하는 것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2. 예수님이 18절에서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무엇을
암시하신 것인가요? (19절)

with
생각

아침을 먹은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하셨어요. “내 양 떼를 먹여라.”

with
결심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불러 주시고, 이번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는 새사람이 되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21:20-25 “너는 나를 따라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베드로가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21.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24.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5절)

“ 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with
생각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듣고 요한의 미래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각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 떼를 먹여라”는 중요하고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베드로의 눈에는 다른 제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지요. 베드로는 누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사명을 받았을까? 비교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른 사명을 주셨고, 각각 받은 그 사명은 모두 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가족과 함께하는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51편 9-12절, 새번역>

9.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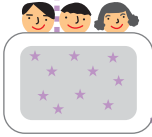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내용이야. ‘하나님 저의 죄에서 눈을 돌리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나를 만나 주세요>

- 파이디온 선교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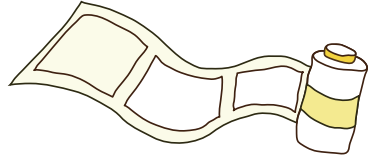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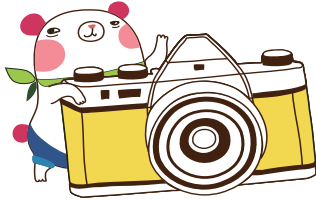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예수님은 오늘도 OO(이)와 함께 하시고, OO(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대. 지금 같이 들고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네. 오늘 이 밤에 잘 때 예수님이 우리 OO(이)와 엄마, 아빠와 만나 주시고, 안아주시면 좋겠다. 자 우리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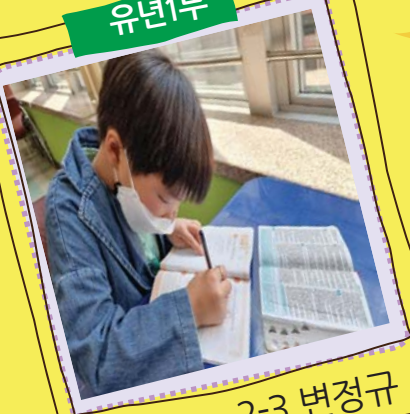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OO(이)와 우리 가족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만나 주시고, 저희를 안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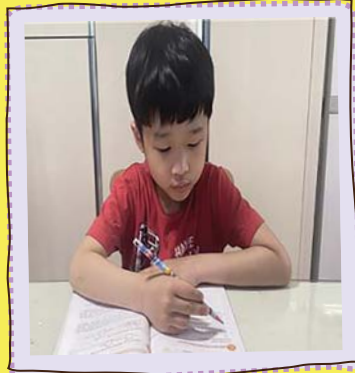


유년1부



2-3 변정규

유년2부



1-4 남강현

유년2부



2-2 김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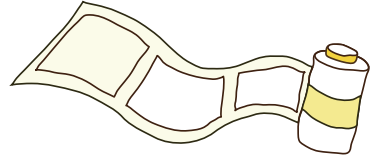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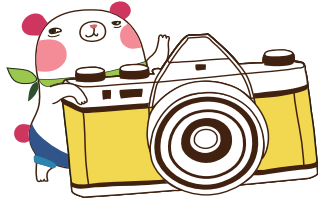
유년2부



2-9 김민하



유년부 PHOTO



유년부

유년부



2-9 김선



2-9 김소윤

유년부



2-9 장진

유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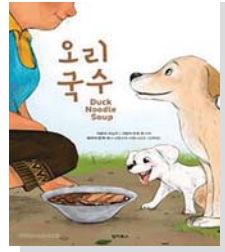
7월

제목 : 오리국수

글 : 최남주 그림 : 편폭 룯크러

번역 : 애나 나파쓰리 수완나조트(오하은)

출판사 : 덩키북스



이 이야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딱 아주머니의 국수 가게에서 시작 돼요. 바쁜 아침 장사를 마친 딱 아주머니는 국수 가게 앞에서 떠돌이 개 누렁이를 보게 되죠. 누렁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렁이를 따라간 곳에서 딱 아주머니는 많이 다친 누렁이 새끼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누렁이 새끼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다행히 생명은 살렸지만, 누렁이 새끼는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딱 아주머니는 아기가 무사함을 알려주기 위해 누렁이 새끼를 안고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갔지만 누렁이는 그곳에 없어요. 수술하는 내내, 병원을 떠나지 않았던 누렁이가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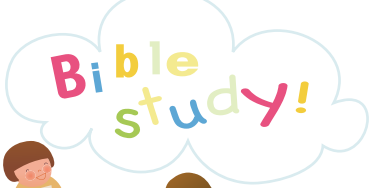
도대체 누렁이와 새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렁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누렁이 새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구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크고 대단한 일에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베풀 수 있는 작고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요.

7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1주						
2주						
3주						
4주						
5주						

